

# 사회적 약자 보듬은 '검은 피부' 스님 화제

## 美 비구니 메뉴엘 스님, 지역사회 귀감 '화제'

미국 캘리포니아 오글랜드에서 '검은색 피부'의 비구니 스님이 화제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8월 4일 "캘리포니아 선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젠주 어스린 메뉴엘(Zenju Earthlyn Manuel · 69) 스님이 '인종' '성별' '빈곤' 등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오글랜드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메뉴엘 스님은 특히 오글랜드 지역 유색인 청소년들의 지친 심신을 달래고 용기를 북돋우는 데 정성을 다하고 있다.

"저를 찾아오는 유색인 청소년들 속에서 내 자신을 본다"고 말하는 메뉴엘 스님은 "처음 법단에 올랐던 날, 나를 바라보는 대중들의 시선에서 놀라움을 보았다"며 당시의 기억을 떠올렸다.

사실 메뉴엘 스님은 미국 불교계 여느 사원이나 선원에서 찾아보기 힘든 이다. 검은색 피부에 가사를 두른 아프리카계 스님이기 때문이다. 메뉴엘 스님이 법단에 처음 올랐던 날, 이를 지켜보는 대중들의 시선도 피부색 때문이었다.

스님은 "놀란 대중들의 시선과 마주하고서 위축되긴 했지만, 대중들의 시선과 반응을 계기로 나는 또 다른 공부의 길을 찾았다"며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한 나머지 정작 자신에게 닥치는 '고'를 바로보지 못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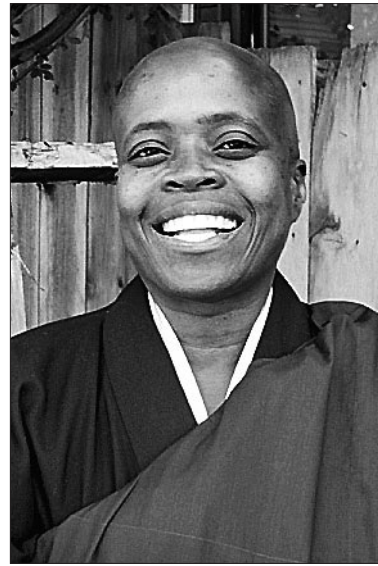
대중을 이끌어왔다는 서원을 세웠다"고 말했다.

이는 메뉴엘 스님이 '인종' '성별' '빈곤' 등과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계기가 됐다.

〈워싱턴포스트〉지는 "검은 피부의 비구니 스님이 '왜곡된 사회 통념'에 당당히 맞설 수 있었던 것은 '받아드리고 여여해지'는 자기 자신의 삶의 여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풀이하고, "이는 스님의 강연에서도 작품에서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어, 대중을 설득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뉴엘 스님은 현재 캘리포니아 선원에서 강연에 열심이다. 또 〈Black Angel Cards〉, 〈Together We Are One〉, 〈Be Love〉, 〈The Way of Tenderness〉 등의 저서를 통해 '다를 수는 있지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소수의 의견을 묵살하는 풍토는 없어야 한다'는 점을 널리 알리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상대적인 진리와 절대적인 진리 두 가지를 강조하셨다"고 전제한 메뉴엘 스님은 "만약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절대적 진리'만이 유용하겠지만, 우리 실상은 그렇지 않다. 부처님의 상대적 진리는 '서로 다름'에서 오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최선의 길이며 지금에서 우리 사



젠주 어스린 메뉴엘 스님 (Zenju Earthlyn Manuel)

### 강연·저술 등 활발한 활동 피부색 편견 딛고 소수자 대변 "부처님 진리, 약자 돕는 길"

회에 꼭 필요한 가르침"이라고 역설했다.

〈워싱턴포스트〉지는 메뉴엘 스님이 강연과 저술에서 보여준 언술은 미국 주류사회 정서에 반하며 이런 점 때문에 스님에 대한 대중의 시선이 남다르고, 또 행보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Dreaming Me: Black, Baptist and Buddhist〉라는 책을 낸 종교학자 젠 윌리스(Jan Willis) 박사는 "메뉴엘 스님의 행보는 미국 주류 불교계의 반발을 낳을 수도 있지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윌리스 박사는 "메뉴엘 스님의 작품에서는 폭력, 빈곤, 편견 등에 시달리는 어린 흑인 소녀가 자주 등장하는데, 메뉴엘 스님이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것에 주목하면 바로 자신의 경험이었을 것"이라며 "1970년대 인종 문제로 내용을 겪은 미국 사회를 지켜보며 젊은 시절을 보낸 스님은 1984년 불교에 귀의하고서야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지는 "요즘 사회에서 약자는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희생당할 수 있다"는 메뉴엘 스님의 말을 인용하고 "메뉴엘 스님은 오늘도 오글랜드의 분원에서 자신을 찾아온 대중들과 명상하며 절대적이고 상대적인 진리를 공부하고 있다. 스님은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선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불교사원이 개원되길 바라는 지역 주민의 바람이 폭넓은 지지를 받아야 하고, 불교사원을 운영할 셈 마저 부부의 재정 능력에 대한 평가 등의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오리아 위원회 매간 엠퍼커(Megan-Erbacher) 위원은 "위원회는 불교사원 운영자의 기회 능력, 공간 활용의 다양성을 다각도로 바라보며 평가하고 있다"며 "폐교가 좋은 종교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것도 바람직한 게 지금까지의 위원회 입장"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이 오페라는 마크 캠벨이 가극대본을 담당하며 메이스 베이츠가 음향부분을 맡는다. 케빈 뉴버리가 감독으로 오페라 제작을 총괄하며 올 9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첫 워크샵을 열 예정이다. 전반적인 사업 진행은 마이클 크리스티가 맡는다.

뉴욕타임즈는 "소식에 따르면 산타페 오페라 축이 실리콘 밸리의 창의성을 상징하는 전자음향과 풍성한 대사, 일물적이지 않은 내레이션과 잡스 자신만큼이나 혁신적인 그의 생산품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고 전했다. 노덕현 기자

## 26년 동안 썩지 않은 승려 시신 '경이'

2011년 1월 발굴... 두개골 사리색 시시각각 변해



'Vietnamnet'은 7월 26일 "베트남 롱 부 파고다(Long Buu Pagoda)사원 탁민득(Thich Minh Duc) 승려 시신이 26년 만에 원형 그대로 발굴됐다"고 보도했다. 사진출처=Vietnamnet

베트남에서 매장된 지 26년이 지났지만 부패되지 않은 승려 시신이 발견돼 놀라움을 안겨주고 있다.

베트남 정보 사이트 'Vietnamnet'은 7월 26일 "탁민득(Thich Minh Duc) 승려 시신은 보존을 위한 어떤 방법도 필요 없이 유지되고 있었다"며 "이 놀라운 사건에 과학자들은 승려가 가진 종교적 힘이 발현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2011년 1월 11일 경 베트남 팡응아이 지역 롱 부 파고다(Long Buu Pagoda) 사원에서 이 시신이 발견됐을 때 사원은 출토 기념식을 열고 탁민득 승려의 시신 유해를 새 사리탑에 봉안했다. 당시 신도들은 관이 모두 부식됐음에도 불구하고 원형이 보존된 시신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보도에 따르면 두개골은 어떻게 변색되었을 뿐 중족골(발목과 발가락 사이 뼈)과 작은 뼈들은 매장 당시 모습 그대로 영적이었다. 이에 대해 'Vietnamnet'은 "그 토양과 암석들로 인한 압박으로 관이 깨졌지만 골격은 전혀 분해되지 않았다"

며 롱 부 파고다 사원 주지 탁한쿠앙(Thich Hanh Khuong) 스님 말을 인용, "시신이 발견될 당시 두개골에 있던 3개의 분홍색 점이 검은색으로 되었다가 1주일 후 다시 노란색으로 변했다"고 설명했다.

엔규엔 란(Nguyen Lan Cuong) 박사는 "깨달은 불교 승려들 몸에는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미스터리한 사리가 발견되는데, 이 시신 두개골에서 시시각각 변색되는 점도 사리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어 박사는 "탁민득 승려 이전에도 젠(Zen) 명상을 마스터한 몇 승려의 부패된 시신이 발견되긴 했지만 이들은 불교 특유의 미라 보존법으로 매장됐다. 불가에 서는 종중 뛰어난 승려들을 미라 형태로 보존한다"면서 "하지만 탁민득 승려는 다르다. 이 승려는 30년 가까이 그저 땅에 묻혀있을 뿐 과학자들은 어떤 특별한 화학성분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탁민득 승려는 1901년 팡응아이 히엩포 마을에서 태어났다. 17세에 출가해 1940년 롱 부 파고다 사원 주지로 임명됐다. 박익모 기자

## 폐교, 법향 그윽한 寺院으로 되살아나다

학생들이 떠난 곳, 폐교가 사원으로 거듭난다.

〈CINews Now〉지는 8월 1일 "일리노이 주에 있는 작은 도시 피오리아(Peoria)에 첫 불교 사원이 들어선다"며 "수년째 비어있던 폐교, 워싱턴 학교(Washington School)가 선군을 심는 불교사원으로 탈바꿈한다"고 보도했다.

피오리아 시청에 따르면, 피오리아 시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알려진 아시아계 이민자 부부 샘 마치(Sam Mach) 씨와 타이 람 풍(Thai Lam Phung) 씨가 수년째 방치된 학교 부지와 건물을 매입했고, 개축 허가를 신청했다.

"우리는 올해 안에 리모델링 과정을 마쳐 사원의 면모를 갖춘 계획"이라는 타이

람 풍 씨는 "스님이 주석하며 지역 불자의 법회를 집전하고 경전을 함께 읽고 명상을 가르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넘어야 할 과정이 적지 않다"고 전제한 〈CINews Now〉지는 "폐교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오는 8월 말 열리는 피오리아 위원회(City Council)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 스티브 잡스의 禪, 오페라로 전한다

스티브 잡스의 인생과 사상을 담은 오페라가 무대에 오른다.

〈뉴욕타임즈〉는 8월 6일 인터넷 판을 통해 유명 오페라극단인 산타페 컴퍼니가 차기작으로 스티브잡스의 오페라를 무대에 올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즈〉는 "산타페 컴퍼니의 차기

작은 "The evolution of Steve Jobs"로 이 오페라를 단순히 '이오페라'로 부를 수 없다"고 말했다.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이 오페라에는 전자음향과 전통악기의 음향이 절묘하게 결합된다. 이는 선수행을 통한 창의적 발상으로 아이팟, 아이폰 등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낸 스티브 잡스의 사상을 표현하기 위함이다.

오페라의 내용으로는 스티브잡스가 애플 창립 후 2011년 사망하기까지의 일화를 담는다. 여기서는 그의 선수행적인 생활 습관과 그로 인한 기술적인 감각, 또 그의 가족과 친구 등 대인관계를 살필 수 있다.

# 범패·작법무·의식과정 학인모집

아래와 같이 제12기 학인을 모집합니다.

- **범패·소리과정(6개월 과정 - 매주 목요일)**: 사십구재, 천도재 작법에 필요한 소리 및 사물(태징, 목탁, 북, 요령) 다루는법 사십구재·천도재·장엄 및 제사 준비등 전과정
- **작법·무용과정(6개월 과정 - 매주 목요일)**: 나비춤 - 사방요신, 다계작법, 도랑계작법, 바라춤 - 오잡바라, 관음계바라, 천수바라, 사다리나바라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작법무 보유자 일초스님 직강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인천수륙재 보유자

- 개강일시 : 2015년 9월 3일 (목요일) 오후 3시
  - 모집인원 : 00명 (FAX 접수가능) ※ 본인 연락처 및 인적사항 필히 기재
  - 접수기간 : 2015년 8월 ~ 2015년 8월 31일 까지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만명합판 사진 3매
- ※ 본원은 초중과 교육원으로서 전통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성취우수자는 심사를 통해 무형문화재 전수생으로 선정합니다. (수료증 포함)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나비춤 보존회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인천수륙재 보존회

## 부설 한국 불교 예술 대학

인천 남구 매소홀로 599(문학동 349-6)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202호  
전화 : 032) 529-6708 FAX : 032) 529-6709  
홈페이지 : http://www.bumpae.org 삼계종 http://www.samgyeojong.org

## 인사말씀

### (사)국제불교승가회 창시자겸 태화사 창건회주 법왕존자 동암스님 동상제막식



울산 태화사 창건 회주 이시교 불무도의 선구자, (사) 국제 불교 승가회 창시자이신 법왕존자 동암스님은 한국불교를 세계 각국에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श्री랑카와의 교류를 통한 중생제도에 혼신을 다하신 업적과 회생을 기억하고자 श्री랑카 콜롬보 아부아하라마 아난다 테로 스님의 사원에 동상을 세우는 큰 행사에 동참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지면으로나마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 동암스님 행장

- 병술년 경남 울산 출생
- 1967년 5월 대한불교 조계종 일봉 대중사 은사로 출가
- 대한불교 조계종 범행 큰스님을 법사로 구족계 수지
- 일봉 선원 지도법사 역임
- 일봉문도회 부회장 역임
- 서울 일봉 호국선원 주지 역임
- 태화사 주지겸 창건회주
- 국제지인 봉사 우호협회 한국본부회장 un-go 등록
- 삼정법사 대승정 승왕 존자 철학박사 8개 박사
- 불무도 선구자
- 불교 교리 등 많은 저서 집필
- 2003년 9월 9일 사단법인 등록 창시
- 2006년 7월 5일 울산 태화사에서 열반트심 (세수 61 법랍 39)

- 장 소 : श्री랑카 콜롬보 아부아하라마 사원
- 일 시 : 2015년 7월 28일
- 참 석 자 : (사) 국제불교 승가회 회장 최정규, 이사장 송애자, 부이사장 무상스님, 이사 대명스님, 사무총장 조상환, 송원스님, 학생스님, 수월스님, 선주스님, 승운스님, 송광스님, 송인스님, 성초스님, 기국진, 이상호, 김준화, 김인성, 박기문, 김규태, 황우화, 정영순, 서원상, 김복순, 주숙자, 류희숙, 김기훈, 유정은, 정효진, श्री랑카 라자팍스 前대총명, 각 정계 인사, 각 종단 큰스님과 사부대중 등

(사) 국제 불교 승가회